

은 속인사회 중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순에서 개인의 이익, 칠정육욕, 각종 욕망에 집착하여 당신은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싸우는데, 이런 것들을 당신이 모두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담담하게 여기지 못하면서 당신이 고요해지려고 하지만, 어찌 말처럼 쉽겠는가?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연공(練功)하면서 말한다: 나는 믿지 않는다, 나는 고요해져야겠다, 잡생각을 하지 말아야겠다. 말이 끝나자마자 또 뒤집혀 나오는데, 이는 당신의 그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고요해지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나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기공사는 사람들에게 무슨 수법(手法)을 취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수일(守一)·관상(觀想)·의수단전(意守丹田)·내시단전(內視丹田) 혹은 염불을 외는 등등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이 한 가지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은 단지 방법인 것만이 아니고, 그것은 일종 공부(功夫)의 체현이다. 그렇다면 공부는 우리가 수련하는心性(심성)과 우리가 제고하는 층차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그가 전일(專一)하게 이 방법을 채용한다 해도 곧 고요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당신이 시험해 보라. 당신이 각종 욕망·집착심이 너무도 강성하여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하는데, 당신은 당신이 고요해질 수 있는지 없는지 보라. 어떤 사람은 염불을 하면 잘 된다고 하지만, 염불한다고 당신이 입정(入靜)에 도달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말한다: 아미타불의 법

중에서는 일세(一世)에 수련 성취할 수 없다고 하며, 많은 고심대법(高深大法) 중에서 수련하는 사람은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데, 그는 명(命)을 닦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는가? 수명을 연장하여 수련할 수 있는데, 수련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소주천은 기본적으로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지만, 대주천은 연공(煉功)으로서, 바로 사람의 진정한 수련이다. 도가에서 가리키는 대주천은 우리처럼 이렇게 맹렬하지 않으며, 백맥을 전부 열어 놓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몇 갈래 맥의 운행으로서, 손의 삼음삼양(三陰三陽), 발 아래, 두 다리에서 줄곧 머리카락까지, 신체를 다 한 번 도는, 이것을 대주천 순환이라고 한다. 대주천이 시작되면 곧 진정한 연공이다. 그러므로 일부 기공사들은 대주천을 전하지 않으며, 그가 전하는 것은 바로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도 대주천을 말하지만, 그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으며, 당신 자신도 소통시키지 못한다.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아 스스로 의념에 의거해 소통하려 하는데, 어찌 말처럼 쉽겠는가! 마치 체조를 하는 것과 같은데 그것을 열 수 있겠는가? 수련은 자신에게 달렸고(修在自), 공은 사부에게 달린(功在師父) 것으로서, 내재적인 이 '기제(機制)'를 전부 당신에게 넣어주어야만 비로소 이런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도가에서는 예부터 인체를 소우주로 본다. 그는 우주의 밖

이 얼마만큼 크면 안도 그만큼 크고, 밖이 무슨 모양이면 안도 그런 모양이라고 인식한다. 이것을 말하자면 불가사의하고 그리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 이 우주가 이렇게 큰데 어찌 사람의 신체와 비교할 수 있는가? 우리 이런 한 가지 이치를 말해 보자. 우리 현재의 물리학에서 물질성분을 연구함에 분자·원자·전자·양성자·쿼크에서 줄곧 중성미자에까지 이르렀는데, 더 아래로는 얼마만한 크기인가? 그 일보에 도달하면 현미경으로는 이미 보지 못하는데, 더 아래의 극히 작은 미립자는 무엇인가? 모른다. 사실 우리 현재의 물리학에서 인식한 요만한 것은 이 우주 중의 가장 작은 미립자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 사람이 육신이 없을 때, 물건을 보는 사람의 눈은 확대하는 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미시적인 것을 볼 수 있다. 층차가 더욱 높아질수록 미시하에서 더욱 크게 보인다.

석가모니는 그런 층차 중에서 그는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 학설을 말했다. 다시 말해서 이 은하계 중에 또 우리 인류처럼 이런 색신(色身)을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모래알 하나 속에 삼천대천세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한 것은 우리 현대 물리학의 인식과 서로 들어맞는다. 전자(電子)가 원자핵을 에워싸고 돌아가는 형식과, 지구가 태양을 에워싸고 돌아가는 것이 뭐가 다른가? 그러므로 석가모니는 미시하에서 모래알 하나 속에 삼천대천세계가 있으며, 그것은 마치 한 우주와 같이 안에는 생명이 있고 물질이 있다

뿐만 아니라, 결과는 바라는 바와 정반대가 된다.

청정심(淸淨心)

많은 사람이 연공(練功)에서 입정하지 못해 곳곳에서 기공사를 찾아 묻는다: 선생님, 저는 어째서 연공할 때 입정하지 못하는지, 입정(入靜)하려고만 하면 무엇이든 다 떠올라서 허튼 생각이 납니다. 그건 정말로 대단히 혼란스러워 무엇이든 다 떠오르기에 당신은 전혀 고요해지지 못한다. 왜 고요해지지 못하는가?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비결이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는 이름난 스승을 찾는다: 나에게 무슨 높은 수(高招)를 좀 가르쳐 주면 고요해질 수 있을 텐데. 내가 보기에는 여전히 밖에서 구하는 것이다. 당신이 만약 당신 자신을 제고하려면 당신은 안에서 찾아야 하며, 당신의 이마에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당신은 그래야만 진정하게 제고할 수 있으며, 가부좌 중에서 당신은 비로소 고요해질 수 있고, 고요해질 수 있음이 바로 공(功)으로서, 정력(定力)이 얼마나 깊은가는 층차의 체현이다.

속인이 마음대로 고요해질 수 있는가? 근기가 아주 좋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혀 고요해지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고요해지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무슨 수법(手法)상의 문제가 아니며, 무슨 절묘한 수(絕招)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사상과 당신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

로 층차가 부동(不同)한 공간이 있는데, 인류의 발전은 고급 생명이 아주 높은 층차 중에서만 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발전법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우리 속인사회는 역사 법칙에 따라 발전하는 것으로서, 당신이 어떻게 발전하려 하며 무슨 목표에 도달하려 하지만, 그 고급생명은 이렇게 고려하지 않는다. 고대의 사람, 그들이 오늘의 비행기·기차·자전거를 생각해 내지 못했겠는가? 내가 말하는데 꼭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것도 아니다. 역사가 그 한 과정으로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도 창조해 낼 수 없었다. 표면적으로 우리 이 속인의 습관적인 이론 인식, 현존의 인류 지식의 이 각도에서 본다면, 인류의 과학이 그 정도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창조해 내지 못한 것이다. 사실 인류 과학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는 역시 역사의 안배에 따라 발전하는 것으로서, 당신이 인위적으로 어떤 목적에 도달하려 해도 도달할 수 없다. 물론 또 어떤 사람은 副意識(푸이스)가 쉽게 작용을 일으키는데, 어떤 작가는 말한다: 나는 책을 쓰면 하루에 몇만 자를 쓸 수 있으며 조금도 힘들지 않고, 쓰려고 하면 아주 빨리 써낼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봐도 꽤 좋다고 한다. 왜 그럴 수 있는가? 이것은 그의 主意識(주이스)·副意識(푸이스)가 반반씩 작용한 결과인데, 그의 副意識(푸이스)도 절반의 작용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 이런 것은 아니며, 절대다수의 副意識(푸이스)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데, 당신이 그에게 일을 시키면 도리어 좋지 않을

고 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라. 그렇다면 그 모래 안의 세계 속에 또 모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 그 모래 속의 모래 속에는 또 삼천대천세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모래 속의 모래 속의 삼천대천세계에 또 모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아래로 캐 내려가면 무궁무진하다. 그런 까닭에 석가모니는 여래, 이 한 층차에 도달했지만, 그는 오히려 이런 한 마디 말을 했다: “크기로는 밖이 없고, 작기로는 안이 없다.” 크게는 우주의 변두리를 보지 못하고, 작게는 그것의 본원 물질의 가장 미소(微小)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한다.

어떤 기공사는 말한다: 팍구멍 속에 도시가 있으며 그 속에서 기차가 달리고 자동차가 달린다. 듣기에는 아주 허황하다. 그러나 우리가 과학의 각도에서 진정하게 이해·연구해 보면 이런 설이 그리 허황하지 않음을 발견한다. 지난번에 내가 천목 열기를 말할 때, 많은 사람이 천목이 열려 이런 광경이 나타났을 것이다: 그는 그의 앞이마 이 한 통로를 따라 밖으로 내달리지만 영원히 끝에 이르지 못하는 것 같다. 매일 연공(煉功)할 때 모두 이 한 갈래 큰길에서 밖으로 내달리는데, 양쪽에는 산이 있고 물이 있으며, 땀 때에 또 도시를 지나고 또한 많고 많은 사람을 본다. 그는 이것을 환각이라고 여긴다. 어찌된 영문인가? 아주 똑똑히 보았으며 환각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데, 만약 사람의 신체가 정말로 미시하에서 그렇게 매우 크다면 그것은 곧 환각이 아니다. 왜냐하면 도가의 연공

(煉功)에서는 예부터 인체를 우주로 보기 때문인데, 만약 정말로 우주라면 앞이마에서 송과체까지 10만 8천리도 넘을 것 인즉, 당신이 밖으로 돌진해 보라, 아득히 멀다.

만약 수련과정 중에 대주천(大周天)을 전부 통하게 한 후 라면, 수련자에게 일종의 공능을 가져다줄 수 있는데, 무슨 공능인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주천을 자오주천(子午周天)이라고도 하고 건곤운행(乾坤運轉)이라고도 하며, 하차운행(河車運轉)이라고도 한다. 매우 얇은 층차 중에서 대주천의 운행은 에너지 흐름을 형성하는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밀도를 높게 하여 더욱 높은 층차 중으로 전화(轉化)할 것이며, 밀도가 아주 높은 에너지띠(能量帶)로 변할 것이다. 이 에너지띠, 그것은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아주 얇은 층차 중에서 천목으로 보면, 그것이 신체 속의 기(氣)로 하여금 위치를 바꾸게 할 수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심장(心)의 기가 장(腸子)으로 가고; 간(肝)의 기가 위(胃)로 가며……, 만약 미시하에서라면 그것이 운반하는 것이 아주 큰 것임을 볼 수 있다. 만약 이 에너지띠를 체외로 내보내면 그것이 곧 운반공(搬運功)이다. 공이 아주 강한 사람은 아주 큰 물건을 운반할 수 있는데 바로 대운반이다. 공이 아주 약한 사람은 아주 작은 물건을 운반할 수 있는데 바로 소운반이다. 이것이 바로 운반공의 형식과 그것의 생성(生成)이다.

대주천은 직접 연공(煉功)하는 것이므로 부동(不同)한 상태와 공(功)의 형식을 가져올 것이며, 그것은 또 우리에게 매

게 통제할수록, 副意識(푸이스)는 더욱 끼어들 수 없다. 그가 생각을 하여 머리가 아플 때, 생각이 나지 않아 몹시 괴로워할 때, 그 副意識(푸이스) 역시 그의 신체의 일부분이고 역시 모태에서 동시에 태어난(降生) 것으로서, 그 역시 신체의 일부분을 주재(主宰)하는데, 그도 따라서 괴로워하며, 그 역시 따라서 머리가 아프고 아파서 못 견딜 지경이다. 그러나 主意識(주이스)가 느슨해졌을 때에 副意識(푸이스)는 바로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대뇌 중에 반영하는데, 그가 다른 공간에 있을 때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곧 해내고, 써내며, 창작해 낸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그러면 우리는 副意識(푸이스)를 운용하자. 마치 방금 어떤 사람이 쪽지에 쓴 것과 같다: 어떻게 하면 副意識(푸이스)와 연계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연계하지 못한다. 당신은 연공(煉功)을 방금 시작한,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연계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목적은 틀림없이 집착이다. 어떤 사람은 아마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副意識(푸이스)를 운용해 우리를 위해 가치를 더 많이 창조하여 인류사회 발전을 추진하면 안 되는가? 안 된다! 무엇 때문인가? 왜냐하면 당신의 副意識(푸이스)가 알고 있는 일 역시 아주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공간이 복잡하고 층차가 많아서 이 우주의 구조는 상당히 복잡한데, 그도 다만 그가 있는 공간의 것을 알 수 있을 뿐, 그가 있는 공간의 것을 벗어나면 그는 모른다. 게다가 또한 많고 많은, 종향(縱向)으

영감(靈感)을 말하자면, 그것 역시 문인이 지어낸 용어다. 일반인은 생각한다: 영감은 바로 사람의 일생 중에서 누적된 지식이 그 한순간에 불꽃처럼 터져 나온 것이다. 내가 말하겠는데, 유물주의(唯物主義) 관점으로 보면, 인류는 일생 중에 지식이 누적되며, 누적된 지식이 많을수록, 사람의 대뇌는 쓰면 쓸수록, 더욱 영활하다. 쓸 때에 와서는 마땅히 술술 끊임 없이 나와야 하는데, 무슨 영감 문제를 이야기할 것도 없다. 무릇 영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나 또는 영감이 올 때는 그것이 이런 상태가 아니다. 흔히 사람이 머리를 쓸 때, 쓰고 써서 마지막에는 지식이 고갈된 것을 느껴 마치 더 쓸 수 없을 것만 같고, 문장 한 편을 써도 거기에 이르러 더 써내려갈 수 없고, 가곡 한 수(首)를 창작해도 구상이 없으며, 한 과학 항목을 연구함에 더 연구해 나가지 못한다. 흔히 이럴 때 지쳐서 핏대가 서고 담배꽂초를 땅바닥에 수두룩이 던졌으며, 답답해서 머리가 몹시 아프지만 역시 생각해 내지 못한다. 결국 모두 어떤 상태에서 영감이 오는가? 예를 들면 지쳤을 때 생각한다. “됐다, 좀 쉬자.” 主意識(주이스)가 대뇌를 더욱 심하게 통제할수록 다른 생명은 역시 끼어들지 못한다. 그가 이렇게 휴식하고 그의 사상이 느슨해져 그것을 생각하지 않자, 이런 무의식중에서 단번에 생각이 떠오르고, 머릿속에서 내보낸다. 영감은 대부분 이렇게 온다.

그러면 왜 이때에 영감이 오는가? 사람의 대뇌가 主意識(주이스)의 통제하에서 머리를 더욱 쓸 때일수록, 그가 심하

우 특수한 상태를 가져다줄 것이다. 무슨 상태인가? 여러분은 아마 고서 중에서, 예컨대 『신선전(神仙傳)』 또는 『단경(丹經)』·『도장(道藏)』·『성명규지(性命圭旨)』 중에 모두 이런 한 마디 말이 씌어 있음을 보았을 것인데, ‘백일비승(白日飛升)’이라고 하며, 바로 대낮에 이 사람이 날아올랐다는 것이다.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대주천이 통하기만 하면, 이 사람은 공중으로 뜰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간단하다. 어떤 사람은 생각한다. 이처럼 여러 해 연공(煉功)했는데, 대주천이 통한 사람 역시 소수가 아닐 것이다. 내가 말하는데 몇만이나 되는 사람이 이런 정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해도 허황하지 않다. 왜냐하면 대주천 그것은 필경 갓 연공하기 시작한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그럼 왜 이런 사람들이 뜨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그가 공중으로 솟아오르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속인사회의 상태는 파괴할 수 없는 것으로서, 속인사회의 사회형식을 함부로 파괴하거나 개변할 수 없다. 사람이 모두 하늘을 날아서야 되겠는가? 그것이 속인사회인가? 이것이 주요한 한 방면이며, 다른 한 방면으로는, 속인 중의 사람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반본귀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또 오성(悟性) 문제가 있다. 많은 사람이 확실하고 확실하게 모두 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본다면 그도 가서 수련하는데, 곧 오성 문제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당신이 수행(修行)하는 것을 또 함부로 사람이 보게 해서는 안 되며,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는데, 다른 사람 역시 수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주천이 통한 이후에 당신의 손가락 끝, 발가락 끝 또는 어느 한 부위를 잠가 놓기만 하면 당신은 날지 못한다.

우리가 대주천이 곧 통하려 할 때 흔히 이런 상태가 나타날 것인데, 어떤 사람은 가부좌할 때 신체가 늘 앞으로 기울어진다. 뒷등이 비교적 잘 통하여 뒷등이 특히 가벼우므로 앞이 무거운 것을 느낄 것이며; 어떤 사람은 뒤로 젖혀지는데, 바로 뒷등이 무겁기에 앞이 가벼움을 느낀다. 만약 당신이 전부다 아주 잘 통했다면, 그러면 당신은 위로 들썩거리고, 자신이 위로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지면을 떠나는 감각이 있을 것이다. 일단 정말로 뜰 수 있을 때에 당신에게 뜨지 못하게 하지만 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공능이 나오는 사람은 양쪽에 있다. 어린이는 집착심이 없으며 노인, 특히 노년 부녀자는 집착심이 없으므로 공능이 나오기 쉬우며 유지하기 쉽다. 남자, 특히 젊은 사람은 일단 공능이 있게 되면 그가 과시하려는 심리를 면치 못하며, 동시에 그는 아마 그것을 속인 중의 경쟁수단으로 삼을 것이다. 이리하여 그것이 존재함을 허용하지 않으며 연마(煉)해 뱉어도 그것을 잠가버린다. 한 곳만 잠가 버리면 이 사람은 뜨지 못한다. 또 절대적으로 당신에게 이 상태가 전혀 나타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아니며, 당신에게 시험해 보게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유지해 나갈 수 있다.

각지에서 학습반을 열 때 모두 이런 정황이 있었다. 내가

識(푸이스)와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主意識(주이스)가 느슨해진 후, 대뇌를 통제하지 않을 때 흐리멍덩하여 마치 잠든 것 같거나, 혹은 꿈속에서, 무의식 상태에서 쉽게 副意識(푸이스), 즉 副元神(푸웬션)에게 주재(主宰)되기 때문이다. 그때에 副意識(푸이스)는 일부 일을 해낼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당신 자신이 흐리멍덩한 상태에서 해낸 것이다. 그러나 흔히 이런 일을 함에 모두 쉽사리 그릇되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副意識(푸이스)는 다른 공간에서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으며, 우리 속인사회에 미혹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해놓은 일을 명백해진 후에 보고는 말한다: 이 일을 어찌 이렇게 잘못했는가, 내가 명명백백할 때에는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러나 당신이 지금은 그것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 열흘이나 보름이 지난 후 되돌아 다시 보면 말할 것이다: 야, 이 일을 이렇게 잘했구나! 그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했는가? 흔히 이런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副意識(푸이스)는 당시에 이 일이 무슨 작용을 일으키는지 상관하지 않는데, 장래에는 좋은 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어떤 일은 무슨 후과가 없고 곧바로 작용을 일으키는데, 副意識(푸이스)가 하면 이 일을 아주 잘할 것이다.

또 한 가지 형식이 있는데, 바로 흔히 우리 근기가 아주 좋은 사람이 쉽게 고급생명의 통제를 받아서 해낸 일부 일들이다. 물론 그것은 다른 한 가지 일로서 여기에서는 말하지 않고, 주로 우리 사람 자신에게서 오는 한 가지 의식을 말하겠다.

의 主意識(주이스) 즉 主元神(주웬선)이 꿈속에서 육친이 앞에 다가온 것을 보았거나, 또는 확실하고 확실하게 한 가지 일을 감수했거나, 무엇을 보았거나 또는 무슨 일을 하였다. 그렇다면 바로 당신의 主元神(주웬선)이 정말로 다른 공간에서 무슨 일을 했으며, 어떤 일을 보았고 또 했는데, 의식이 똑똑하고 진실하다. 이런 일은 확실하고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으로서, 다만 다른 물질공간 중에서, 다른 시공(時空) 중에서 한 것에 불과하다. 당신은 그것을 꿈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다. 당신 이쪽의 물질신체는 확실히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오직 이런 꿈만이 당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사람의 영감(靈感)·하의식(下意識)·잠재의식(潛意識)류를 말하자면, 이런 용어는 과학자들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문인(文人)들이 속인 중의 습관적인 상태에 근거해 만들어낸 용어로서, 그것은 과학성이 없다고 나는 말한다. 사람들이 가리키는 잠재의식은 도대체 무엇인가? 분명하게 말하기가 무척 어려우며 아주 두루뭉술하다. 왜냐하면 사람의 각종 정보가 너무나도 복잡해 마치 일종의 희미하고 희미한 약간의 기억과도 같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하의식을 우리는 그래도 해석하기가 쉽다. 하의식이라는 이런 상태에 내린 정의에 의하면, 통상 사람이 흐리멍덩했을 때에 한 가지 일을 함을 가리키는데, 흔히 사람들은 그의 하의식이 한 것이며, 의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런 하의식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副意

산동(山東)에서 학습반을 열 때에 제남(濟南)의 수련생, 북경(北京)의 수련생이 모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말했다: 스승님, 저는 어찌된 일입니까. 길을 걸으면 늘 땅에서 뜨러 하고 집에 누워 잠을 자도 뜨며 이불을 덮으면 이불마저도 뜨러 고 하는데, 늘 풍선처럼 위로 뜹니다. 내가 귀양(貴陽)에서 학습반을 열 때, 귀주(貴州)의 한 노수련생은 할머니였는데 그녀의 방 안에는 침대 두 개가, 한 쪽 벽에 하나씩 놓여 있었다. 그녀는 침대 위에 앉아 가부좌를 했는데, 자신이 뜬 것을 느껴 눈을 떠보니 떠서 저쪽 침대에 가 있었으며, 그녀가, 나는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자 또 떠서 돌아왔다.

청도(靑島)의 한 수련생은 점심휴식 시간에 실내에 사람이 없을 때, 그는 침대 위에서 가부좌를 했다. 그는 가부좌를 하자마자 떠올랐고, 위로 들쭉거림이 아주 심했는데 1미터 높이 나 되었다. 뜬 다음에는 또 떨어져 내려와 쿵쿵 반복해서 들쭉거리며 이불마저 땅에 떨어졌다. 약간 흥분되기도 하고 또 겁이 조금 났는데 들쭉들쭉하면서 온 점심시간 동안 오르내렸다. 마지막에 시작종이 울리자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다른 사람이 보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걸 무엇을 하는 것인가. 빨리 멈추자. 멈췄다. 이것이 바로 왜 노인들이 파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젊은이라면 시작종이 울리자 말할 것이다. 다들 와서 봐라. 나는 날았다. 사람은 바로 여기서 자신의 과시심을 그리 쉽게 파악하지 못한다: 봐라. 내가 이 공을 얼마나 잘 연마(煉)했는가. 나는 날 수 있다. 그가 과시만 하면 없어

지는데,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아주 많으며 각지 수련생에게 다 있다.

우리는 시작하자마자 곧 백맥이 전부 열린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백분의 팔, 구십 사람들이 현재 모두 온몸이 가벼운 상태에 도달했으며 병이 없다. 동시에 우리는 말했다. 이 학습반에서 당신을 이런 상태로 밀어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신체를 완전히 정화(淨化)해 주고, 또 당신의 신체 속에 많은 것을 넣어주며, 학습반에서 당신에게 공이 나오게 하는데, 내가 당신을 끌어올려서 더 앞으로 보낸 것과 같다. 내가 학습반에서 줄곧 여러분에게 설법하여 여러분의 心性(썬쌩)도 줄곧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 많은 사람은 이 강당에서 나간 다음, 당신이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텐데, 보증코 당신의 세계관마저 전변(轉變)이 생길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알 것이며, 더는 그렇게 얼떨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것인데, 보증코 이리하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心性(썬쌩)은 이미 따라 올라온 것이다.

대주천을 말하자면, 비록 당신으로 하여금 뜨지 못하도록 하지만 당신은 온몸이 가벼움을 느끼고, 길을 걸어도 바람에 나는 듯할 것이다. 과거에는 몇 걸음만 걸어도 힘들었지만 현재는 아무리 멀리 걸어도 매우 가볍음을 느끼고, 자전거를 타면 마치 누가 당신을 밀어 주는 것 같으며, 계단을 오르면 얼마나 높이 올라도 힘들지 않는데, 보증코 이리하다. 이 책을

인체과학을 연구함에, 사람의 사유는 일종의 변혁(變革)이 일어나야 하며, 속인의 그런 추리방법과 문제를 인식하는 방법으로는 그러한 초상(超常)적인 것을 인식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의념을 말하자면 또 몇 가지 의념 형식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말하는 잠재의식(潛意識), 하의식(下意識), 영감(靈感), 꿈을 꾸는 등등이다. 꿈꾸는 것을 말하면 어떤 기공사도 그것을 해석하기 싫어한다. 당신이 태어날(降生) 때 우주의 많은 공간 중에 모두 동시에 당신이 태어나는데, 당신과 완전(完整)한 한 몸이기 때문에, 모두 서로 연계가 발생하며 사유(思維)상에서 모두 연대적 관계가 있다. 게다가 당신 자신은 또 主元神(주웬션)·副元神(푸웬션)이 있으며 또한 기타 각종 생명체의 그런 형상이 체내에 존재하는가 하면, 매 세포·오장육부는 모두 다른 공간 속에 있는 당신 형상정보가 존재하는 그런 형식이다. 그러므로 매우 복잡하다. 당신이 꿈을 꿀 때 잠시 이렇다가 잠시 저렇다가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의학에서는 우리의 대뇌피질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이 물질형식에서 표현되는 반응인데, 사실 그것은 다른 공간의 그런 정보의 작용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꿈을 꿀 때 당신은 흐리멍덩한 감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당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당신도 그것을 상관할 필요가 없다. 어떤 꿈은 당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런 꿈을 우리는 그것을 꿈이라고 할 수 없다. 당신

식할 수 있다.

어떤 기공사는 말한다: 내가 당신에게 공능을 개발해 주겠다. 무슨 공능을 개발한단 말인가? 그의 공능은 에너지가 없으면 쓸모없으며 나오지 않는데, 당신이 개발해 낼 수 있겠는가? 그의 공능이 그의 에너지에 의해 가지(加持)되지 않아 형체를 이루지 못했을 때, 당신이 그것을 개발해 낼 수 있겠는가? 전혀 안 된다. 그가 말하는 공능 개발은 다만 이미 형성된 당신의 공능과 당신의 대뇌를 연결함에 불과한 것으로서, 당신 대뇌의 지휘를 받아 작용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그가 공능을 개발했다고 한다. 사실 그는 당신에게 아무런 공능도 개발해 주지 못했으며, 단지 이런 조그마한 일을 했을 뿐이다.

연공인(煉功人)을 두고 말하면 사람의 의념이 사람의 공능을 지휘해 일을 하나; 한 속인으로 말하면 의념이 사람의 사지·감각기관을 지휘해 일을 하는데, 마치 한 공장의 생산 사무실, 공장장 사무실에서 지령을 내리고 구체적인 각개 직능부문마다 제각기 할 일을 하는 것과도 같다. 마치 부대의 지휘부서와 같이, 사령부에서 명령을 내리고 전체 부대를 지휘해 임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 내가 외지에서 학습반을 열 때 현지의 기공연구회의 지도자와 늘 이 문제를 말하였다. 그들은 매우 놀라워했다: 우리는 줄곧 사람의 사유(思維)에 얼마나 큰 잠재에너지, 잠재의식이 있는지를 연구해 왔다. 사실 이런 것이 아니며 그는 시작부터 빗나갔다. 나는

보고 혼자서 수련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마땅히 있어야 할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원치 않는 말은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말한 것은 꼭 참말이어야 한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설법할 때에 내가 만약 참말을 하지 않고 여기에서 허황한 말을 하며, 과녁을 겨냥해 활을 쏘듯이 하지 못하고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한다면, 나는 바로 사법(邪法)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 역시 쉽지 않으며, 우주 중에서 모두 보고 있는데, 당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걸으면 안 된다.

일반인은 단지 이러한 주천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만인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신체가 완전히 고에너지물질로 재빨리 대체·전화(轉化)되는 데에 도달하자면 또 한 가지 주천 형식의 주향(走向)이 있어야 한다. 당신 신체의 모든 맥을 이끄는 주향, 그것을 묘유주천(卯酉周天)이라고 하는데, 아마 아는 사람이 아주 적을 것이다. 책에서 때로는 이런 용어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없으며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모두 이론을 둘러싸고 빙빙 도는데, 비밀 중의 비밀이기 때문이다. 우리 여기에서는 모두 당신에게 말해주겠다: 가히 백회혈(百會穴)에서 시작해(또 회음혈에서 나올 수도 있음), 나와서는 음양 양면의 경계로 가며, 귀 옆으로 내려와서, 그런 다음 어깨를 지나 내려온다. 손가락 사이를 하나하나씩 지난다. 그런 다음 신체의 측면으로 내려가서 발 밑을 지나, 사타구니 한 측면으로 올라온다. 그런 다음 다시 다

른 한 측면으로 내려가서는, 다시 발밑을 거쳐, 신체의 측면으로 올라온다. 손가락 사이를 하나하나씩 지나, 한 바퀴 돌아서 정수리에 이르는, 이것이 바로 묘유주천이다. 남들이 책 한 권을 쓸 수 있는 것을 나는 몇 마디로 말했다. 내 생각에는 이 역시 무슨 천기(天機)라고 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은 이런 것들이 모두 아주 진귀하다고 여겨, 아예 말하지 않는데, 진정으로 도제(徒弟)에게 전할 때만 묘유주천을 말한다. 내가 비록 말은 했지만 누구도 의념으로 인도하고, 통제하여 연마(煉)하지 말라. 당신이 연마한다면 우리의法輪大法(파룬파파)가 아니다. 진정한 고층차의 수련은 무위(無爲)인 것으로서, 어떤 의념활동도 없으며, 당신에게 전부 다 만들어진 것을 준다. 이런 것은 모두 자동으로 형성되는 것인데, 이런 내재적인 기(機)가 당신을 연련(演煉)해 주고 있으며, 때가 되면 그것은 자전(自轉)할 것이다. 어느 날 당신이 연공(煉功)할 때에 머리를 저을 것인데, 머리를 이쪽으로 저으면 그것이 바로 이렇게 돌고, 머리를 저쪽으로 저으면 바로 저렇게 돌아 양쪽으로 모두 돈다.

대·소주천이 통한 후에 가부좌를 하면 머리를 꼬떡일 수 있는데, 이것은 에너지가 통과하는 현상이다. 우리가 연마(煉)하는法輪周天法(파룬주천법) 역시 마찬가지로서, 우리는 이렇게 연마(煉)하는데, 사실 당신이 연마하지 않을 때에도 그것은 스스로 돌고 있다. 평소 늘 돌고 있으며, 당신이 연마할 때는 이 기(機)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법이 사람을 연마

도 해낼 수가 없다. 한 연공인(煉功人)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할 때면 그의 공능이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공능은 인체의 잠재능력으로서, 우리 인류사회의 발전에 따라 사람의 대뇌사유는 갈수록 복잡하게 변했으며, 갈수록 현실을 중시하는가 하면, 갈수록 이른바 현대화한 도구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사람의 본능은 갈수록 퇴화되었다. 도가에서는 반본귀진을 말하는데, 수련과정 중에서 당신은 진(眞)을 구해야 하고, 최후에 반본귀진하여 당신의 원시적인 본성으로 되돌아가야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이런 본능을 드러낼 수 있다. 우리는 현재 특이공능(特異功能)이라고 하지만 사실 모두 사람의 본능이다. 인류사회는 마치 진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후퇴하고 있으며, 갈수록 우리 우주의 특성과 멀어지고 있다. 지난번에 나는 장과로(張果老)가 당나귀를 돌아앉아 탔다는 말을 했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감이 곧바로 후퇴며, 사람이 우주의 특성과 갈수록 멀어짐을 발견했다. 우주의 연화(演化) 과정에서, 특히 현재 상품경제의 큰 물결로 진입한 후, 많은 사람의 도덕이 상당히 폐괴(敗壞)되어 우주의 眞(眞)·善(善)·忍(忍) 특성과 갈수록 멀어졌다. 속인 중에서 조류(潮流)를 따라 걸어온 사람들은 인류의 도덕이 폐괴한 정도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좋은 일로 여기는데, 오직心性(썬썬)을 수련해 올라온 사람이 돌이켜 보기만 하면, 인류 도덕의 폐괴가 이처럼 두려운 지경까지 왔음을 비로소 인

는 元神(웬선)이 내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보내는 것은 언어가 아니며, 그가 내보내는 것은 일종의 우주 정보로서 모종의 의미를 대표한다. 우리 대뇌는 이런 지령을 받아들인 후, 그것을 우리 현재의 언어, 이런 표현 형식으로 가공한다. 우리는 손짓, 눈길, 전체 동작으로 그것을 표현해 내는데, 대뇌는 바로 이런 작용을 일으킨다. 진정한 지령, 진정한 사유는 사람의 元神(웬선)이 내보내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대뇌의 직접적인 독립작용이라고 여기는데, 사실 때로는 元神(웬선)이 마음(心)에 가 있어, 어떤 사람은 확실히 마음이 생각(心想)함을 느낀다.

현재 인체를 연구하는 사람은 사람의 대뇌가 내보내는 것은 마치 일종의 전파와도 같은 이런 형식의 것이라고 인식한다. 실질적으로 내보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먼저 말하지 않지만, 그들은 그것이 일종의 물질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렇다면 미신이 아니다. 내보내는 이런 것은 무슨 작용을 일으키는가? 어떤 기공사는 말한다: 나는 의념으로 운반하고, 의념으로 당신의 천목을 열어주며, 의념으로 당신의 병을 치료하는 등등을 해준다. 사실 일부 기공사들은 그 자신에게 어떤 공능이 있는지 전혀 모르며 또 분명하게 알지도 못한다. 그는 단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려 하기만 하면 곧 잘되는 것을 알 뿐이다. 사실 바로 그의 의념이 활동하고 있으며 공능이 대뇌 의념의 통제를 받아들여, 의념의 지휘하에서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지만, 그의 의념 자체는 결코 아무런 일

함(法煉人)을 말하지 않는가? 평소 당신은 당신의 그 주천이 늘 순환하고 있음을 발견하는데, 당신이 연마하지 않아도 밖 에다 넣어준 이 한 층의 氣機(치지), 바로 한 층의 외재적인 대맥(大脈)이 당신의 신체를 이끌어 연마하고 있으며, 모두 자동이다. 그것은 또 반대로 돌 수 있는데, 정반(正反) 양면으로 모두 돌 수 있으며, 시시각각 모두 당신의 맥을 통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주천이 통하게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주천이 통하게 하는 자체는 연공(煉功)의 목적이 아니다. 당신이 주천이 통했다 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더 수련해 나가면, 목적은 주천의 이런 형식을 거쳐서 일맥이 백맥을 이끌어 하며 신체의 맥, 모든 맥을 전부 이끌어 여는 데 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일을 했다. 계속 연마해 가면 어떤 사람은 대 주천이 돌 때 맥이 연마되는 것이 아주 넓어 마치 손가락과 같을 것이며, 안이 아주 넓은 것을 발견할 것이다. 에너지도 아주 강하기 때문에 에너지 흐름이 형성된 후에 그것은 아주 넓어질 것이며 또한 아주 밝아질 것이다. 이걸 아직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연마해야 하는가? 사람의 신체로 하여금 백맥이 모두 점차적으로 넓어지게 하여, 에너지가 갈수록 더욱 강하고 갈수록 더욱 밝게 변하게 해야 한다. 최후에는 만여 갈래 맥이 한데로 이어지게 하여, 맥이 없고 혈(穴)이 없는 경지에 도달해 전반 신체가 하나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통맥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적이다. 그것의 목

적은 사람의 신체를 전부 다 고에너지물질로 전화(轉化)하는데 있다.

이 일보까지 연마(煉)했을 때 사람의 신체는 기본상 고에너지물질로 전화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미 世間法(쓰젠파)수련의 최고층차로 연마되었으며, 인체의 육신은 이미 수련의 최정점(最頂點)에 이르렀다. 이 일보까지 왔을 때 그에게 또 한 가지 상태를 가져다줄 수 있는데, 어떤 상태인가? 그의 공이 나온 것이 이미 아주 풍부하다. 속인 신체의 수련, 즉 世間法(쓰젠파)수련과정 중에서 사람의 모든 특이공능(잠재능력),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나오지만, 속인 중에서 수련하므로 대부분은 잠겨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공기둥은 이미 상당히 높게 자랐으며, 모든 공의 형식이 모두 강대한 공에 가지(加持)되어 상당히 강하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우리 이 현존의 공간 중에서 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 뿐, 다른 공간을 제약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만 우리 속인의 육체로 수련해 나온 공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상당히 풍부해졌으며 각개 공간 중, 부동(不同)한 공간 중에서 신체가 존재하는 각종 형식에 모두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 신체가 갖고 있는 것, 매 한 층 공간의 신체가 갖고 있는 것은 모두 상당히 풍부해졌는데, 보기에 사람을 매우 놀라게 한다. 어떤 사람의 신체는 곳곳이 눈이며 온몸의 땀구멍도 모두 눈인데, 그의 전체 공간장(空間場) 범위 내에 모두 눈이 있을 수 있다. 불가공이기 때문에 어떤 신체는 온몸이 모두 보살·부처의 형

인의 元神(웬선)은 매우 작으며, 사람의 대뇌가 내보내는 진정한 정보는 사람 대뇌 자체가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대뇌 자체가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元神(웬선)이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元神(웬선)은 다만 니환궁(泥丸宮)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도가에서 말하는 니환궁이란 바로 우리 현대의학에서 인식한 송과체(松果體)다. 만약 元神(웬선)이 니환궁에 있으면 우리는 확실하게 대뇌가 문제를 사고하고 정보를 내보내고 있음을 느끼고, 만약 마음(心)에 있으면 확실하고 확실하게 마음이 문제를 사고함을 느낀다.

인체는 소우주로서, 연공인(煉功人)의 많고 많은 생명체는 모두 자리를 바꾸는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만약 元神(웬선)이 자리를 바꿀 때, 그가 배로 가면 확실히 배가 문제를 생각함을 느낄 것이고, 만약 元神(웬선)이 장판지·발꿈치로 가면 곧 장판지·발꿈치가 문제를 사고함을 느낄 것이다. 보증코 이러한데, 듣기에는 아주 허황하다. 당신의 수련 층차가 그리 높지 못할 때에 당신은 곧 이런 현상이 존재함을 느낄 것이다. 사람의 신체에 만약 그의 元神(웬선)이 없고 그의 성격(脾氣)·천성(秉性)·특성(特性), 이런 것들이 없다면 곧 고깃덩어리로서 그는 완전(完整)하고 독립적인 자아개성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사람의 대뇌는 무슨 작용을 일으키는가? 내가 말하겠는데, 사람의 대뇌는 우리 이 물질공간의 형식 중에서 그것은 단지 가공공장일 뿐이다. 진정한 정보

의념(意念)

의념(意念)을 말하자면 바로 우리 사람의 사유 활동이다. 수련계에서는 대뇌의 사유 활동에서 사람의 의념을 어떻게 보는가? 사람의 사유(의념)의 부동(不同)한 형식을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체현되어 나오는 것인가? 현대의학이 사람의 대뇌를 연구함에 아직도 아주 많은 문제는 풀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 신체 표면의 것처럼 이렇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심층(深層)에서는, 부동(不同)한 공간에는 다 부동한 형식이 있다. 그러나 일부 기공사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지 않다. 일부 기공사들은 그 자신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며, 그는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다. 그는 자신의 대뇌가 움직이기만 하면, 의념이 생기기만 하면, 일부 일을 할 수 있다고 여기며, 그는 곧 그의 사상이 한 것이고 그의 의념이 한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의 의념이 한 것이 아니다.

우리 먼저 사람 사유의 내원(來源)을 말해 보자. 중국 고대에 ‘마음이 생각한다(心想)’는 한 가지 설이 있다. 왜 마음이 생각한다고 했는가? 중국 고대의 과학은 아주 발달했는데, 그것은 직접 인체·생명·우주 이런 것들을 연구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확실하고 확실하게 마음(心)이 문제를 생각함을 느끼며, 어떤 사람은 대뇌가 문제를 생각함을 느낀다. 왜 이런 정황이 나타날 수 있는가? 그가 말한, 마음이 생각한다(心想) 함은 역시 이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속

상이다. 각종 공의 형태는 이미 극히 풍부한 정도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많고 많은 생명체가 나타난다.

이 일보에 이르렀을 때 그는 또 일종 상태가 나타날 것인데, ‘삼화취정(三花聚頂)’이라고 한다. 그것은 매우 뚜렷한 상태이며, 또 아주 눈에 띄어 천목 층차가 높지 않은 사람도 보아낼 수 있다. 머리 위에 세 송이 꽃이 있는데, 한 송이는 연꽃(蓮花)이지만 우리 물질공간 중의 연꽃(荷花)이 아니며, 또한 두 송이 역시 다른 공간의 꽃으로서 대단히 미묘(美妙)하다. 세 송이 꽃은 차례로 정수리에서 도는데, 바른쪽으로 돌고 반대쪽으로 돌며, 세 송이 꽃은 또 자전(自轉)할 수 있다. 매 한 송이 꽃은 한 가닥 큰 기둥이 있으며 꽃의 직경과 마찬가지로 굵다. 세 가닥 큰 기둥이 하늘 꼭대기로 직통하는데 그것은 공기둥이 아니며, 그것은 바로 이런 형식으로서, 매우 현묘(玄妙)하여 당신 자신이 보아도 깜짝 놀랄 것이다. 이 일보까지 수련했을 때, 신체는 희고도 깨끗하며 피부 역시 부드러워진다. 이 일보에 이르렀을 때, 바로 世間法(쓰젠파) 수련의 최고형식에 다다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정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며, 여전히 계속 수련해 나가야 하는데,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 앞으로 나아가면 世間法(쓰젠파)와 出世間法(추쓰젠파) 사이의 과도 층차에 진입하는데, 정백체(淨白體)[정백체(晶白體)라고도 부름] 상태라고 한다. 왜냐하면 신체가 世間法(쓰젠파) 최고형식으로 수련되었어도, 사람의 육신이 최고

형식으로 전화(轉化)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진정하게 그 형식에 들어가면 온 신체는 완전히 고에너지물질로 구성된다. 왜 정백체(淨白體)라고 하는가? 그가 이미 절대적인, 고도의 순정(純淨)함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천목으로 보면 온 신체가 투명한데, 마치 투명한 유리와의 같아 보기에는 아무 것도 없는, 이런 상태가 나타날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는 이미 불체(佛體)이다. 왜냐하면 고에너지물질로 구성된 신체와 우리 자체의 신체는 이미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일보까지 도달했을 때, 신체에서 나타나는 모든 공능과 술류(術類)의 것들을 단번에 전부 내버리며, 그것을 아주 깊은 공간 중에 부려 넣는데, 쓸모없으며 지금 이후로 더는 쓸모가 없다. 다만 당신이 장래에 수련 성취하여 도를 얻는 그날에, 당신은 당신의 수련과정을 한번 되돌아보며 그것을 꺼내어 볼 뿐이다. 이때는 다만 두 가지가 존재한다: 공기둥이 아직 있고, 수련된 원영(元嬰)은 이미 아주 크게 자랐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모두 매우 깊은 공간에 있는데, 일반인은 천목 층차가 높지 않기에 보지 못하며, 그에게는 다만 이 사람의 신체가 투명체로 보일 뿐이다.

정백체(淨白體) 상태는 과도 층차이기에, 더 수련해 나갈 때면 진정한 出世間法(추쓰젠파) 수련으로 들어가는데, 또한 불체(佛體) 수련이라고도 한다. 전반 신체는 공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때 사람의 心性(썬썬)은 이미 안정되었다. 다시 새롭게 연마(煉)를 시작하여 새롭게 공능이 나오기 시작하는바,

인체의 세포 중에 끊임없이 축적하고, 그것의 밀도를 끊임없이 높게 할 때, 점차적으로 속인의 세포를 억제할 수 있으며, 서서히 속인의 세포를 대체한다. 그때 가서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 이 사람은 곧 청춘이 오래 머무르게 된다. 물론 수련 과정 중에서는 아주 느린 과정으로서 상당히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육신을 고달프게 하고(勞其筋骨)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苦其心志) 이것은 아주 쉽지 않은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心性(썬썬) 마찰 중에서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가? 개인의 절실한 이익 앞에서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일들은 하려면 모두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목적에 도달하려 한다 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心性(썬썬), 사람의 德(더)를 모두 닦아 올라와야만 비로소 이런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

예부터 많은 사람이 모두 기공을 일반 체육단련과 혼동했는데, 사실 차이가 너무나도 크며 전혀 같은 일이 아니다. 단지 가장 낮은 층차에서 기를 연마(練)할 때,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여 건강한 신체에 도달함을 강구하는 데에서 가장 낮은 층차의 목적과 체육단련은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고층차에 이르러서는 전혀 그런 일이 아니다. 기공의 신체 정화(淨化)에는 역시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한 초상(超常)적인 이치로 연공인(煉功人)에게 요구해야 하며, 속인의 이치로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체육단련은 단지 속인 중의 일일 뿐이다.

걸었다.

기공수련은 체육단련과는 바로 상반되는데, 동작에서 맹렬히 운동함을 요구하지 않으며, 동작이 있다 해도 느슨하게·천천히·둥글게 하고, 몹시 느리게 하며, 심지어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다. 여러분은 선정(禪定)이란 이런 수련방법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멈춰 있어 심장이 뛰는 속도마저도 다 늦추며, 혈액순환 등 모든 것을 다 늦출 수 있다. 인도(印度)에는 많은 요가사(瑜伽師)가 있는데, 며칠 동안 물속에 앉아 있을 수 있고, 며칠 동안 땅속에 묻혀 있을 수도 있으며, 완전히 자신을 멈춰 있게 하는데, 심지어 심장 박동마저 통제할 수 있다. 가령 사람의 세포가 하루에 한 차례 분열한다고 하면, 수련자는 인체의 세포를 이틀에 한 차례 분열하게 하고, 1주일에 한 차례 분열하게 하며, 반달에 한 차례 분열하게 하는가 하면, 심지어 더욱 긴 시간에 한 차례 분열하게 하는데, 그렇다면 그는 이미 그의 생명을 연장한 것이다. 이것은 여전히 성(性)만 닦고 명(命)을 닦지 않는 그런 공법인데, 그것 역시 이 점에 도달할 수 있으며 역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한다: 사람의 생명, 사람의 일생은 정해진 것이 아닌가? 명을 닦지 않고서 어찌 더 오래 살 수 있는가? 된다. 왜냐하면 수련하는 사람의 층차가 삼계(三界)를 돌파하면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관상으로는 아주 늙어 보인다.

진정하게 명을 닦는 공법은 채집하여 온 고에너지물질을

그를 공능이라 하지 않고 ‘불법신통(佛法神通)’이라 하는데, 그는 모든 각개 공간을 제약하며 위력이 무궁하다. 장래에 당신 자신이 끊임없이 수련함에 따라 더욱 높은 층차의 것은 어떻게 수련해야 하는가와 수련의 존재형식을 스스로 곧 알게 된다.

환희심(歡喜心)

이런 한 가지 문제를 말하겠는데, 이 역시 환희심에 속한다. 많은 사람이 장시간의 연공(練功)을 거쳤고, 또 어떤 사람은 공을 연마(練)한 적이 없다. 그러나 그는 일생 중에서 진리(真理)와 인생의 참뜻을 추구하고 사색해 왔다. 그가 일단 우리 法輪大法(파룬파파)를 배운 이후에, 그가 인생 중에서 알고자 했고, 또한 해석하지 못했던, 많고 많은 문제를 그는 단번에 알게 되었다. 아마 그의 사상과 함께 승화할 것이며, 그의 심정은 대단히 격동될 것인즉, 이 한 점은 확실하다. 나는 알고 있다. 진정으로 수련하는 사람은 그의 경중(輕重)을 알 것이며, 그는 소중히 해야 함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흔히 또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 사람이 기뻐함으로 하여 불필요한 환희심이 생겨나서, 그는 형식상에서, 속인사회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 중에서, 속인사회 환경 중에서 비정상적인 표현을 야기하는데, 나는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한다.

우리 이 한 세트 공법의 대부분은 속인사회 중에서 수련하

는데, 당신은 자신을 속인사회에서 이탈하게 할 수 없으며, 당신은 명명백백하게 수련해야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여전히 정상적인 관계여야 하며, 당연히 心性(썸썸)이 아주 높고 심태가 매우 바르며, 자신의 心性(썸썸)을 제고하고 자신의 층차를 제고하며,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는, 다만 이런 표현이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표현이 정신마저도 비정상인 것 같고, 마치 속세를 꿰뚫어 보는 것처럼 하여, 말을 해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은法輪大法(파룬파파)를 배우더니 어찌 이 모양으로 변했는가? 마치 정신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한다. 사실 그런 것이 아닌데, 바로 그가 너무나도 격동되어 이지적이지 못하며, 상식적인 이치에 맞지 않을 뿐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역시 옳지 않은데, 당신은 또 다른 극단으로 들어갔으며, 역시 집착심이다. 당신은 마땅히 그것을 버려야 하며, 여러 사람들처럼 정상적으로 속인 중에서 생활하고, 수련해야 한다. 속인 중에서, 사람들이 모두 당신을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보고, 사람들이 모두 당신과 견식을 같이하지 않으며, 또 당신을 멀리하는가 하면, 누구도 당신에게 心性(썸썸)을 제고할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고, 누구도 당신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말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이 문제를 주의해야 하며, 반드시 자신을 잘 파악해야 한다.

우리의 공법은 일반적인 공법처럼 흔들거리거나, 흐리멍덩

생명력은 운동선수의 경기상태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는 곧 훈련을 강화해 그의 혈액 순환을 더욱 강하게 한다. 그런 다음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여 이런 오래된 세포를 대체하는데, 그는 이 길을 걷는다. 다시 말해서 세포의 전 과정을 다 걷기 전에, 생명의 노정을 절반 건자마자 그것을 배설해 버린다. 그러므로 신체는 늘 건강하고, 향상됨을 유지한다. 그러나 인류의 세포는 무한정 이렇게 분열해 나갈 수 없으며 세포의 분열 횟수는 유한하다. 가령 사람의 일생 중에 세포가 백 차례 분열할 수 있다고 하자. 실제로는, 백만 차례도 넘는다. 가령 정상적인 사람의 세포가 백 차례 분열하여 백년을 살 수 있다고 하자. 그런데 현재의 세포가 다만 생명의 절반밖에 살지 못한다면, 그는 단지 50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운동선수에게 그리 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현재의 운동선수는 30세도 되기 전에 도태(淘汰)되며, 더욱이 현재의 경기수준 또한 높아 운동선수가 도태되는 숫자 역시 많기 때문에, 그는 또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하여 그리 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론적으로 보면 실질은 이런데, 그의 신체를 건강한 유기체로 유지하게 할 수 있지만, 도리어 그의 생명을 단축한다. 외관상 보면, 십대 운동선수는 마치 이십대로 보이고, 이십대는 마치 삼십대의 사람과도 같다. 흔히 운동선수는 사람에게 조속하거나 노쇠한 감을 주는데, 이로움도 있고 폐단도 있어, 변증법적으로 보아야 하는바, 사실 바로 이 길을

만이 아니라, 그것은 초상(超常)적이며 또한 부동(不同)한 층차에서 모두 그것의 부동한 나타남이 있는 것으로서, 그것은 이처럼 속인의 것을 훨씬 넘어선 것이다.

단련의 본질에서 보면 그것들의 차이 역시 아주 크다. 운동 선수는 운동량을 늘릴 것을 요구하는데, 특히 현재의 운동 선수는 자신의 신체를 현대의 이런 경기수준에 적응하게 하고, 그러한 표준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 그는 신체를 줄곧 가장 좋은 상태에 처하게 한다.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운동량을 늘려 사람의 신체가 혈액순환이 충분하게 되도록 함으로써, 그의 대사능력(代謝能力)을 증강(增強)하여 신체가 줄곧 향상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왜 대사능력을 증강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운동선수의 신체는 언제나 향상하는 가장 좋은 경기 상태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신체는 무수한 세포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세포는 모두 이런 과정이 있다: 새로 분열해 나온 세포의 생명력은 아주 강하며 위로 발전함을 나타낸다. 극한에 달했을 때 그것은 더 발전할 수 없으며 다만 하강(下降)할 수밖에 없는데, 줄곧 극점까지 내려갔을 때 또 새로운 세포로 그것을 대체한다. 예를 들어 하루를 열두 시간으로 비유해 말한다면, 아침 여섯 시부터 세포가 분열해 나와 줄곧 향상하고 향상함이 나타나는데, 여덟·아홉 시, 열 시경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매우 좋은 시기이다. 열두 시가 되면 그것은 더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아래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 이 시간 내에 세포는 아직 절반 생명력이 있는데, 이 절반

하거나, 정신이 나간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공법은 모두 당신이 명명백백하게 당신 자신을 수련할 것을 요구한다. 어떤 사람은 늘 말한다: 스승님, 저는 눈을 감기만 하면 흔들거립니다. 나는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당신은 이미 자신의 主意識(주이스)를 놓아버리는 습관을 양성했는데, 당신이 눈만 감으면 자신의 主意識(주이스)를 느슨하게 하고 없게 하는, 이런 습관을 당신은 이미 양성했다. 여기에 앉아서 당신은 왜 흔들거리지 않는가? 당신이 눈을 뜬 상태를 유지하고, 이렇게 살며시 눈을 감으면 당신은 흔들리는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이 기공이란 이렇게 연마(練)해야 한다고 여기는데, 당신은 일종의 개념을 형성하여 눈만 감으면 당신이 없고 어디에 갔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당신의 主意識(주이스)가 반드시 또렷해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 한 세트의 공법은 당신 자신을 수련하는 것이므로, 당신은 명명백백하게 제고해야 한다. 우리 또한 정공(靜功)이 있는데, 우리 이 한 세트의 정공은 어떻게 연마(煉)하는가? 우리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데, 당신은 定(땡)이 아무리 깊더라도 자신이 여기에서 연공(煉功)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며, 아무 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가? 거기에 앉아있을 때에 마치 자신이 달걀껍질 속에 앉아있는 것처럼 미묘(美妙)하고 무척 편안한 감각을 느끼며, 자신이 연공(煉功)하고 있음을 알지만 온몸을 움직일 수 없음을 느낄 것이

다. 이는 모두 우리 이 공법에서 반드시 출현한다. 또 한 가지 상태가 있어 앉아있다 보면 다리도 없어진 것을 발견하는데, 다리가 어디로 갔는지 분명하게 생각나지 않으며, 신체도 없어지고 팔도 없어지며 손도 없어져 머리만 남아있다. 더 연마(煉)해 나가면 머리도 없어지고 오로지 자신의 사유만 있음을 발견하며, 약간의 의념(意念)이 자신이 여기에서 연공하고 있음을 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정도에 도달하면 족하다. 무엇 때문인가? 사람이 이런 상태 속에서 연공하면 신체는 가장 충분한 연변(演變) 상태, 가장 좋은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이 이런 상태에서 입정(入靜)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당신은 잠이 들거나 혼미해지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면 아마 좋은 것을 다른 사람이 연마할 것이다.

우리 모든 연공인(煉功人)은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데, 속인 중에서 비정상적으로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 속인 중에서 당신이 좋은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면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法輪大法(파룬파파)를 배우면 왜 모두 이 모양이냐고. 이것은 바로法輪大法(파룬파파)의 명예를 파괴하는 것과 같으며, 이 일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수련의 기타 방면과 과정 중에서도 환희심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은 마(魔)에게 이용당하기가 아주 쉽다.

제 9 장

기공(氣功)과 체육(體育)

일반적인 층차 중에서, 사람들은 기공과 체육단련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여기기 쉽다. 물론 저층차(低層次)에서 말하자면 건강한 신체를 얻는다는 이 한 방면에서 볼 때, 기공과 체육단련은 일치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그것의 단련방법, 채용한 수단은 체육단련과 차이가 아주 크다. 체육단련으로 사람이 건강한 신체에 도달하려면 사람의 운동량을 늘리고 사람의 신체훈련을 강화해야 하나, 기공수련은 정반대로서 사람을 움직이지 않게 한다. 움직인다 해도 느슨하게(緩), 천천히(慢), 둥글게(圓) 하며 심지어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다. 이는 곧 체육단련의 형식과 차이가 아주 크다. 그러면 만약 고층차에서 말하자면, 기공은 다만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더욱 높은 층차의 것과 더욱 깊은 내포가 있다. 기공은 단지 속인 이 층차 중의 고만한 것

에서 하는 전업수련은 이런 요구에 대해 아주 엄했다. 우리는 연공인(煉功人)의 心性(심성) 표준에 따라 자신에게 요구하여, 무엇을 마땅히 말해야 하고 무엇을 마땅히 말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잘 파악하기만 하면 된다.

수구(修口)

수구(修口), 과거에 종교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것이 가리키는 이 수구의 중점은, 그들 일부 전업(專業)수련자-승려·도사가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전업수련자이기 때문에 목적은 더욱 큰 한도로 사람의 집착심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며, 그것은 사람이 생각을 움직이기만 하면 곧 업이라고 여겼다. 종교 중에서는 업을 선업(善業)과 악업(惡業) 두 종류로 나누었는데, 선업이든 악업이든 불가의 공(空), 도가의 무(無)로 말하면 모두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는 말한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물의 인연관계, 바로 이 일이 도대체 좋은 일인지 아니면 나쁜 일인지, 어떠한 인연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반 수련자는 그렇게 높은 층차에 있지 않아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는 좋은 일이지만, 하기만 하면 나쁜 일일지도 몰라 염려한다. 그래서 그는 되도록 무위(無爲)를 말하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이렇게 그가 업을 더 짓는 것을 피한다. 업을 지었으면 소업(消業)해야 하며 고생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수련자를 예로 들면, 그가 어느 일보에 이르러 개공하는가를 이미 정해놓았는데, 당신이 불필요하게 중도에 어떤 것을 끼워 넣는다면, 이는 모두 전반 수련에 곤란을 조성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곧 무위(無爲)를 말한다.

불가에서 말하는 수구(修口)란, 말하자면, 사람이 말을 함은 모두 사람의 사상의식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사상의식은 바로 유위(有爲)이다. 사람의 사상의식 자체가 생각을 움직이려 하고, 무엇을 좀 말하려 하거나 무엇을 좀 하려면, 사람의 감각기관·사지를 지배하는데, 속인 중에서는 일종의 집착일 수 있다. 당신을 놓고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순이 있어 당신은 좋다, 그는 나쁘다, 당신은 수련을 잘 했다, 그는 수련을 잘 못했다 하는, 이런 자체가 바로 모순이다. 우리 일반적인 것을 말해 보자. 내가 무엇을 하려면 바로 그것을 하고, 현재 이 일을 어떻게 해야겠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한다면, 무의식중에 누구를 해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순은 모두 매우 복잡한 것으로서, 무의식중에 엮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그는 절대적으로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과거에 종교 중에서는 줄곧 수구를 아주 중하게 보았는데, 이것은 종교 중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우리法輪大法(파룬파파) 수련자의 절대다수는 모두가 속인 중에서 수련(전업수련제자 제외)하는데, 그렇다면 속인사회에서 속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사회와 교제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사람마다 모두 한 몫의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일을 잘해야 하며, 어떤 사람은 바로 말로 일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모순되지 않는가? 역시 모순되지 않는다. 모순되지 않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말하는 수구는 그들과 전혀

다르다. 수련하는 법문이 부동(不同)하기 때문에 요구도 같지 않다.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 모두 연공인(煉功人)의心性(썬썬)에 따라 말하고, 시비를 일으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며, 좋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다.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을 마땅히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는 법의 표준에 따라 자신을 가늠해야 한다. 마땅히 말해야 하는 것은 법으로 가늠하여 연공인의心性(썬썬)표준에 부합되면 문제가 없다. 또한 우리는 법을 말하고, 법을 선전해야 하므로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수구해야 하는 것은, 속인 중의 그런 내려놓지 못하는 명리와 사회의 실제 사업 중에서 수련자와 관계없는 말을 하고, 동문제자(同門弟子) 중에서 서로 간에 쓸모없는 잡담을 하고, 집착심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주위들은 풍문으로 일부 골목소식을 전하고, 사회상의 기타 일부 일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면 곧잘 흥분하여 아주 말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서, 내 생각에 이는 모두 속인의 집착심이다. 이런 방면에서 나는 우리가 마땅히 입을 좀 닦아(修)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수구(修口)다. 과거의 승려는 이런 것들을 아주 중하게 보았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을 움직이기만 하면 곧 입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신(身)·구(口)·의(意)’를 말했다. 그가 말하는 수신(修身)이란 그것은 바로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며, 수구(修口)란 그것은 바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수의(修意)란 그것은 바로 생각마저 하지 않는 것이다. 과거 사원(寺院) 중